

광주신세계, 유스퀘어 부지 전부 매입한다

내달 13일 금호고속과 계약 체결키로...매입 금액 4700억 쇼핑·문화·예술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 개발 본격화

광주신세계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을 전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신세계는 유스퀘어 부지를 활용해 광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호남권 대표 프리미엄 백화점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매입을 통해 광주신세계는 문화·예술 등 토지·건물, 터미널 사업권에 대한 영업 양수를 공식했다. 매입 금액은 4700억원으로, 광주신세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오는 3월 13일 금호고속 측과 이날 공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며, 최종 양수기준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다만 광주신세계는 최종 양수에 앞서 유스퀘어 문화관 내 영화관과 식당가 등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 신세계, 금호그룹은 유스퀘어를 중심으로 쇼핑·문화·예술을 복합한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형 백화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공시는 광주신세계와 금호가 지난해 업무협약 이후 유스퀘어의 신속한 개발 필요성을 서로 공

감하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가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신세계의 유스퀘어 부지 매입으로 이른바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 (가칭) 설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지 매입을 포함한 영업 양수 과정이 최종 마무리되면 확장 사업 및 프리미엄 백화점 설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는 영업면적 약 9만9000㎡(3만평)로 현 광주신세계의 3배에 달한다. 광주신세계는 쇼핑 외에도 갤러리와 오픈형 대형 서점, 옥상 공원, 루프탑 레스토랑, 펍파크 등을 들이고, 입점 브랜드도 현재 530여개에서 10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광주신세계는 유스퀘어 부지와 건물 등 도구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개발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또 광주신세계가 오는 2033년까지 금호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현 백화점의 활용 방법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하반기 중 확장 사업을 위한 도시 건축 등 인허가 절차를 밟고, 오는 2028년까지 프리미엄 백화점을 오픈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신세계는 앞서 이마트 광주점 부지와 신세계 신관 야외주차장 부지 등을 합쳐 새로운 백화점을 짓기로 했지만,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다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확장 부지를 유스퀘어로 선

회하고 3개월 만에 유스퀘어 부지 매입이라는 협상 결과를 내놨다. 광주신세계의 이날 공시로 계획 상으로 같은 해인 2028년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 (가칭)와의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광주신세계와 더현대 광주, 어등산 관공단지에서 지어지는 관광형 쇼핑 공간인 그랜드 스타필드까지, 복합쇼핑몰 3곳의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집합건물 전체 매각을 원했지만 여러 차례 협상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유스퀘어 터미널 일대 3만여평 중 67%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대지권을 보유하게 돼, 원활한 확장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은행 '복구 소상공인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문인 광주 복구청장과 안수진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복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복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서민금융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복구청은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산지원금액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본격 분양

제일·호반건설, 84㎡~115㎡ 948가구
발코니 확장시 10여개 옵션 무상 제공

제일건설(주)과 호반건설이 공급하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산22번지 일원)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24층, 10개 동, 총 948가구 규모 단지다. 전용면적별로 ▲84㎡A 389가구 ▲84㎡B 224가구 ▲84㎡C 113가구 ▲115㎡A 222가구다. 오는 3월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에 나선다. 3월 12일 당첨자 발표 후, 25~27일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 대로 전용 84㎡ 기준 최저 4억4400만원 최대 5억4900만원이다. 봉산공원 제일풍경채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소비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특히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아일랜드장,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포세린 타일 거실 아트월, 광폭 강마루 등 10여개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해 추가 부담을 낮췄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중도금 대출 실행

전 전매가 가능하고, 재담점 제한도 없다.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는 대규모 공원과 함께 다양한 여가, 휴식시설이 들어서는 게 특징이다. 첨단지구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반경 1km 안에 월봉-봉산초, 월봉-봉산중, 첨단중·고 등이 위치해있다. 월계동과 수안동 확완도 가까우며,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차량 이동이 편리하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 및 알파룸이 적용된다. 타입에 따라 4Bay, 파우더룸, 팬트리, 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로 공간활용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대형 평수의 경우 욕실 특화도 가능하다. 주차공간은 가구당 약 1.6대로 넉넉하며 스카이라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 시설과 물향기공방, 만남의 숲 등 조성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마곡동 183-1에 마련됐다. 분양문의, 1877-9922. /김민석 기자 mskim@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인기 출시 사흘만에 1000대 판매 돌파

최대 용량 올린원 세탁·건조기

세탁기와 건조기가 융합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콤보' <사진>가 출시 사흘만에 1000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는 ▲15kg 건조용량 ▲단독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 ▲AI 허브 편의성 등 기능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드럼 세탁기(25kg)와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15kg)를 합쳐, 세탁 후 건조를 위해 세탁물을 옮길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설치 공간을 약 40% 절약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건조 용량 올린원 세탁·건조기 제품으로, 김사이즈 이불 빨래도 가능하다. 특히 일체형 제품이지만 단독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을 선보이며, 셔츠 약 17장(3kg)은 세탁부터 건조까지 99분만에 가능하다. 고성능 칩과 타이젠 OS를 기반으로 한 AI 허브는 7형 와이피 디스크리니를 통해 세탁·건조 기능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싱스와 연결된 스마트 기기 제어나 멀티미디어 이용도 지원한다. 빅스비 음성인식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콤보를 시작으로 비스포크 제트 AI, 비스포크 제트봇 AI 등 AI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농협 '쌀 걱정생산 대책 추진 설명회' 개최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 27일 전남농협 경제사업부와 시군지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쌀 걱정생산 대책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번 설명회는 ▲전남 벼 재배 감축 목표 제시(5600ha) ▲2024년 달라지는 전라작물 직불제(품목 확대, 단가 인상 등) ▲전남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 전남농협은 쌀 걱정생산 대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전남 관내 농협에 홍보와 독려로 벼 재배 면적 감축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결의했다. 전남농협은 쌀 걱정생산 대책 추진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오는 3월31일까지, 전라작물직불제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5월31일까지 각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박종택 본부장은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는 쌀 수급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코스피 | 2652.29(+27.24) |
| 코스닥 | 863.39(+9.64) |
| 금리 (국고채 3년) | 3.359(-0.05) |
| 환율 (USD) | 1333.60(+2.60) |

중진공 호남연수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원장 조수정)은 28일 13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졸업식에는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송창금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장,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13기 졸업생 등 50명이 참석했다. 졸업식은 우수 졸업기업 표창, 졸업장·졸업기업 현판수여, 지역선행 동문기업 응원 메시지, 창업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됐다. 커스터마이징 캠핑매트 개발기업 '아이디퍼퍼트'가 우수기업 표창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수직정원 시스템 개발기업인 '(주)씨앤이'가 중진공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사무공간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 지원사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